

친환경 에너지산업,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전주시·전북도·군산시,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전주시가 전북도, 군산시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함께 제안한 '슈퍼커패시터(Super Capacitor)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와 특장차, 건설기계 등 특수목적 모빌리티의 전동화에 적합한 슈퍼커패시터의 개발 여건을 만들고,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를 융합한 전동추진체 개발 및 기업지원 등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도, 군산시와 함께 2025년까지 총 89억을 투입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고출력 융합 전동추진체 개발 및 시험평가 장비구축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 기술 지원 △인력양성 등을 진행한다.

시는 특장차와 상용차, 건설기계 등 특수목적 모빌리티의 경우 전동화 시

고출력 에너지원의 탑재가 필수적으로, 차세대 고출력, 고용량 에너지원인 슈퍼커패시터가 보조에너지원으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슈퍼커패시터는 수명이 길고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며 저온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의 상용차, 특장차, 건설기계 산업과 연계한 슈퍼커패시터와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슈퍼커패시터의

경우 각각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인조흑연 등 핵심소재로 탄소소재가 적용되고 있어, 지역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향후 관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슈퍼커패시터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관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경우 각각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인조흑연 등 핵심소재로 탄소소재가 적용되고 있어, 지역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향후 관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슈퍼커패시터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관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은 16일 재단 1층에서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와 노인일자리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하는 어르신 활기찬 노후 지원 협력

전주시복지재단-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16일 재단 1층에서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와 노인일자리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 정보, 복지사업 기금마련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 일하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상호 지원 △금융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금융복지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지원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기타 재단과 연합회의 상호 발전과 관련해 협의의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복지재단은 2018

년에 전주시가 출연한 복지전문기관으로 전주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원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 내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시시니어클럽연합회는 전주시 노인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인 전주노인.효자시니어클럽으로 구성돼 기관간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100세 시대에 양질의 노인복지사업은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여, 재단에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을 위해 연한 상호 발전과 관련해 협의의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민·관 협력 전주시 주거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서

EBS 나눔0700 방송 지원으로 장애인 청년 가구 맞춤형 지원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근이영양증'의 희소 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 청년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완료하고, 16일 노송동의 대상가구 주택 현장에서 입주식과 함께 그간 추진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EBS나눔0700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됐다. 대상 가구는 완치가 어려운 희소 유전질환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20대 장애인 청년의 가구이다. 장애인 청년은 조모와 부모와 함께 50년이 넘는 노후 주택에 거주해 왔다. 누수과 단열, 화장실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센터는 EBS나눔0700 방송에 대상자의 사연을 신청했고, 방송을 통해 소중한 후원금을 모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대상 가구에게는 △지붕보수 △화장

실개선 △창호설치 △도배·장판교체의 주거환경개선공사와 △대상자 맞춤형 가구 등이 지원됐다.

특히 지원 과정에는 지역 봉사단체인 우정회 집수리봉사단, 희망홀씨 집수리봉사단, 기전대 어울림동아리, 전북교육청 Wae센터가 함께 참여해 대상가구의 정리수납과 주거환경개선 공사에 재능나눔을 했다. 지역업체인 ㈜8수도에서는 화장실 개선을 위한 물품을 후원했고 노송동 주민센터에서도 함께 참여해 생활폐기물처리 등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힘을 보탠 민·관 협력으로 진행됐다.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한 집수리봉사단의 회원은 "우리 이웃인 전주시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땀 흘리며 봉사활동 할 수 있어서 보람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의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근이영양증'의 희소 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청년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완료하고, 16일 노송동의 대상가구 주택 현장에서 입주식과 함께 그간 추진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를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관심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도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행정의 적극 협조를 바탕으로 전주시 취약가구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충경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가 16일 충경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다가교에서 병무청 오거리까지 총 1.2km 구간에 170억 원을 들여 보행차도 구분 없는 광장형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공사 진행중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사업추진

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와 이 공사 방식으로 인한 장단점 등에 대하여도 점검을 하였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 교통 상황과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중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충경로는 전주의 역사를 함께 한 시민의 도로"라며 "시민 불편 없이 빠른 사업 추진으로 공사가 원활히 완료돼 충경로 일대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택시요금 결제도 전주시사랑상품권으로 하세요"

전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전주시사랑상품권(카드형 상품권)'의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결제는 상품권 운영 대행사와 택시결제업체 간의 결제시스템 연동으로 성사됐다.

택시 이용객은 상품권 충전금으로 택시 요금 결제가 가능하고, 물품 구매 시와 동일하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이용 가능 택시는 개인택시 2,300여대와 법인택시 1,400여대 등 전주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모

든 택시이다.

타 시·군 택시 및 카카오택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에선 이용할 수 없다. 시는 기존에 결제가 되지 않았던 택시에서 전주시사랑상품권의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품권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남미 전주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주시사랑상품권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상품권 활용성을 높여 사용자 편의성 증대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